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에 대한 현대와 동양적 전통 사이의 갈등 또는 대화*

尹 天 根**

<목 차>

1.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을 규정하는 토대
2. ‘현대’가 전통적 ‘성 문화’의 바탕을 흔들어대는 이유와 그 철학적 의미
3. 동양적 전통이 갖추고 있는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에 대한 기본입장
4. ‘성적 정체성’, 또는 ‘성 역할’은 현대에서는 더 이상 일반적 문화양상일 수 없는가?

1.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을 규정하는 토대

‘성의 생물학적인 의미’는 존재의 영역 속에 놓여진다. 그것은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을 규정하는 ‘근본적 토대’이다. ‘성의 문화적 의미’는 ‘성의 생물학적인 의미’가 ‘토대’로서 기능하여 떠올린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일단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을 규정하는 ‘근본적 토대’라고 하기는 어렵고, ‘2차적인 토대’라고 하겠다.

진화의 역사가 떠올리는 ‘성의 생물학적인 의미’는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의 최소한이고,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의 출발점이다. ‘성의 문화적 의미’는 이 ‘성의 생물학적 의미’를 문화적 차원에서 번역해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의 생물학적 의미’는 분명히 ‘성의 문화적 의미’의 토대이다.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997년도 자유공모과제(공동연구) 연구비지원을 받은 논문임.

** 안동대 국학부 교수.

생물학적인 영역 속에 놓여져 있는 '토대로서의 성'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져 있는 양성의 체계',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기능과 조건', '그러한 신체적 기능과 조건을 이용하여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성적 행위'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는 모든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의 바닥에 가로놓여진 '존재'의 조건이다.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을 일단 생물학적인 영역을 중심에 두고 말할 때, 우리는 위의 세 가지 기본 조건을 토대로 하여 파생된 '일차적 문화현상'으로서의 '성'의 의식과 행위를 만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생물학적 성의 기본조건을 통하여 조형된 일차적 문화현상으로서의 '성'의 의식과 행위는 최소한의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존재'의 영역을 벗어나서 '의식'의 영역으로 옮겨졌을 때 우리는 문화의 옷을 입고 제출되는 '제1의적 성적 정체성'과 '제1의적 성 역할'을 만날 수 있다. 이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은 생물학적인 '성'의 토대적 인소들과 직접 맞닿아 있는 것으로, 그것이 문화현상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의미는 아주 작고, 존재의 요소는 아주 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제1의적 성적 정체성'과 '제1의적 성 역할'은 그 '성'의 '근본적 토대'에 의하여 '중심적으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변용이 불가능하다. 모든 인류가 거의 똑같은 양상을 드러내도록 '중심적인 것'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전제된 '세 가지 조건'은 모든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의 '가장 깊은 바닥'에 놓여지는 '근본적 토대'이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에 대해서 중심적 지배력을 '일반적'으로 갖는다. '제1의적인 성적 정체성'과 '제1의적인 성 역할'은 위상에 있어서 '세 가지 조건'과 조금 차이가 난다. '세 가지 조건'은 '토대'로서의 위상만을 가지지만, '제1의적인 성적 정체성' '제1의적 성 역할'은 '떠올려진 것'으로서의 위상과 '토대'로서의 위상을 아울러 갖기 때문이다. '제1의적 성적 정체성'과 '제1의적 성 역할'은 위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만은 '떠올려진

것'의 위상을 갖지만, 다른 모든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에 대해서는 '토대'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그것은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 가운데서는 가장 깊은 자리에 놓여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도 말하였듯이, '세 가지 조건'은 '존재'의 양상만을 가지고, '제1의적 성적 정체성'과 '제1의적 성 역할'은 그 '존재'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제일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므로, '세 가지 조건'과 '제1의적 성적 정체성'이나 '제1의적 성 역할'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인 '토대'와 '드러난 것' 사이의 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지닌다. 그 양자 사이에도 지배와 구속의 관계는 있지만, 그 양자 사이의 내용이 통일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지배와 구속은 다른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내용의 이질성, 또는 내용의 이질화 경향성을 전제로 하는 귀속과 변용의 상관관계 양상을 띠지는 않는 것이다.

존재는 그 스스로에 의하여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는 '어떻게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드러났느냐'의 문제이다. '드러남'의 측면에 있어서는 의식의 정도와 시각의 입각점에 따라서 다양한 층차가 나뉘어질 수 있고, 역사 속에서의 문화의 변이양상을 따라 무수한 변모를 연출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양상은 '제2의적'·'제3의적' 등으로 무수한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의 변이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모든 문화적 양상들에 대해서 '제1의적 성적 정체성'과 '제1의적 성 역할'은 토대로서의 권능을 행사한다. 이것은 앞의 '근본적 토대'와 구분되는 '2차적 토대'이다.

2. '현대'가 전통적 '성 문화'의 바탕을 흔들어대는 이유와 그 철학적 의미

'한없는 자유로움'에 대한 현대의 지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인가? 그것은 근세적 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¹⁾ 이성주의가 중심에서 이끌어간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역사'는 인류의 삶을 총체적으로 규범문화의 전통으로부터 끌어내어 해체시켜 내었다. 물론 '해체'는 현대의식의 상표이지만, 이러한 해체적 의식은 근세 이래 진행되어 온 역사가 필연적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하겠다.²⁾

모든 시대, 모든 역사는 '새로 만들어내기'와 '해체시켜내기'를 복합적으로 수행한다. 문화는 필연적으로 변모하는 것인데, 문화의 변모는 일면에서는 '새로 만들어내기'의 양상을 띠며, 다른 일면에서는 '해체시켜내기'의 양상을 띠는 것이다. '만들어 가기'의 모습이 보다 강하게 드러날 때에는, 문화는 '새로움'을 충전하여 내면서도 기왕의 문화양상으로부터 바탕적 구조를 보다 강하게 상속받는다. '해체시켜내기'의 모습이 보다 강하게 드러날 때에는, 문화는 규범성을 떠올릴 수 있는 토대를 잃고 파편화되어 나가게 마련이다.³⁾

-
- 1) 현대적 자유의 표상은 '해체'이다. 해체주의자들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한다. 그 최선두에 놓여져 있는 '해체주의자'들의 신은 '자크 데리다'이다. 그러나 '데리다'는 이러한 우리의 일반적 의식과는 다른 말을 하였다. 그는 "계몽의 전통을 재구성"하는 것이 인류의 과제라고 말하며 "예컨대 정의는 법과 권리의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해체될 수 있고 재구성될 수 있지만,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 나는 감히 해체는 정의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한다(한겨레신문, 1993년 11월 24일자, 「한상진 교수가 만나본 『마르크스의 유령』의 저자 '자크 데리다'」). 결국 그가 제출한 '해체'라는 것은 우리를 '진실한 보편적 가치'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 문화적·이성적 강제력에 대한 총체적 비판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하겠다. 모든 것을 다 버리기 위한 해체가 아니라, 진실로 가치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해체라는 말이다.
 - 2) '현대'는 유럽에서 19세기 이후 근대 시민사회의 대변동과 함께 나타났으며, '현대'는 '근대의 계승'이 아니라 '근대의 초극'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근대의 합리주의는 인간의 이성이나 선한 품성을 소박하게 믿고 있으며, 인간 중심주의의 '오만'에 빠져 있는데, 현대는 인간의 선천적인 사악한 충동이나 욕구가 이성이나 도덕·문화에 의해 간신히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이와사시 시게루 외, 『칸트, 헤겔, 마르크스는 이미 낡았는가?』, 정갑수 옮김, 19~20쪽). 그러나 이성의 오만 뒤에 숨은 사악한 인간 역시도 이성이 발견해낸 공적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현대는 근대의 이성주의 전통을 다른 측면에서 계승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 3) 나는 이 점을 '전승'과 '소망'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요동'의 양상으로 설명한 바 있다(윤

대부분의 시대에 있어서, 문화의 규범성은 보다 구심력을 갖는다. 시대의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문화의 규범성을 해체시켜 내고자 하는 원심력이 적극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탓이다. 그렇지만 요동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상황이 정반대로 나타난다.

20세기 말기는 요동하는 시대이다. 20세기 말기가 드러내는 시대적 요동의 양상은 전면적이다. 근세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길러온 이성의 권능이 각각의 인간들을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주체로 떠올리고, 사람들은 이제 보편적 시대가 떠올려 주는 규범성에 맞추어 생각하고 행위하기를 거부하고, 개인적이거나 소집단적인 삶의 방식을 폭넓게 추구하여 나가기 때문이다. 이성의 권능이 인류를 난파시키고 '개인' 또는 '개인적인 것'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⁴⁾

그런데 20세기 말의 이러한 양상은 이제까지의 인류의 역사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현상이다. 이제까지의 인류 역사는 '개인' 또는 '개인적인 것'의 성찰에 기대서 그 문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집단' 또는 '집단적인 것'에 기초하여 문화를 만들었다.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 '집단' 또는 '집단적인 것'이란, '개인'이나 '특권계층'에 의하여 점유된 '집단성'이라고 하겠다. 이 '점유된 집단성'이야말로 인류가 문화를 떠올리기 시작한 때부터 현대까지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 토대이다. 그것은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 '집단(?)에 의한 개인의 지배', '표상된 선에 의한 표상된 악의 지배', '존재에 의한 현상의 지

최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국학」, 안동대학교 국학부 편, 『우리 국학의 방향과 과제』, 247쪽).

4) 현대의 자유주의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보편성·일반성의 이성적 기초를 허물어 놓는 데에는 '자유'가 절대적 기능을 담당하고, 보편적 이성, 일반적 문화가 힘을 잃은 곳에서는 '생각없이 따르기'에 입각한 대중주의가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이러한 대중주의의 최종적 형식을 우리는 '세계화'에서 찾을 수 있다(동아일보, 1998년 4월 1일자, 「글로벌스탠더드 시대 1」 참조). 삶의 세계적 표준화는 일상적 문화영역이 자유경쟁에 의한 선택을 전면에 내걸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절대우위를 갖는 하나의 표준에 의해 전체적으로 장악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배' 등의 바탕적 구조를 떠올린다.⁵⁾

이러한 기제들의 지배적 양상은 인류의 전 역사 속을 관통한다. 그러나 근세의 도전은 이러한 몇 가지 기제들의 지배력에 일정한 균열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성은 그저 받아들이기를 선택하지 않고, 각자의 합리적 사유를 진행시켜 나가기를 요청하였는데, 그것은 역사를 통해 내내 상속되어 내려온 문화적 기제들에게는 그 정당성 여부를 각자의 이성에 의하여 새로이 시험받아야 하는 새로운 상황을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이성의 도전은 전통적인 문화기제들을 하나하나 폐기하여 나간 것이다. 남성지배적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성 문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성'은 혈족의 의미가 부계 중심으로 사유되기에 이르면서, 남성지배적 문화의 여러 가지 양상을 갖추어 내었다. 남성의 근력이 인간사회의 지배력을 획득한 탓이다. '근력'이 경제력과 동일시되고, '근력'이 사회적 권력과 동일시되던 시대에 인류의 사회화가 완성되어 나갔으므로, 여성보다 근력이 우월한 남성이 사회적으로 유력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고, 남성지배적 문화는 구체적 형태를 갖추어 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여 남성은 부계혈족 중심의 가족개념을 만들어 냄으로써 한정된 시간 속에 놓여져 있는 스스로의 존재성을 '혈족의 강'을 통하여 불멸성으로 확산시켜 내었으며, 남성과 여성 사이에 펼쳐져 있는 '성'을 독점적으로 사유하기에 이르렀다. 인간의 성에 있어서 '남성'은 주권자가 되었으며, 여성은 피주권자의 위치로 전락하기에 이른 것이다. '성 문화'의 바탕에 놓여지는 여러 개념들, 즉 '가족'·'결혼'·'상속'·'순결' 등의 개념 속에는 이러한 성격상의 특징, 그러니까 주권자로서의 남

5) 이 점은 현대의 대중주의 역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현대의 대중주의와는 같지 않다. 현대의 대중주의가 삶의 현상성에 있어서의 세계적 표준화를 추구하여 가는 것이라면, 전통적 환경 속에 놓여 있는 보편주의는 그 본질에 있어서의 이상성·진리성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과 피주권자로서의 여성의 모습이 일관되게 투영되어 있다. '성'이 어쩔 수 없이 사회정치적 의미로 읽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⁶⁾

그런데 우리는 근세적 이성의 시대 역시 남성지배적 문화 속에 놓여지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세적 이성의 시대는 인류사의 주류적 문화양상 속에 자리잡고 있는 비이성적인 측면들을 교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광범하게 보여주지만, 남성지배적 문화의 기본 틀을 바꾸어낼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성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자의 의식을 투영하여 편의성을 드러내게 마련이지만, 가끔씩은 그 자체의 투명한 빛을 거침없이 펼쳐내서 그것을 사용하는 자의 편의성조차도 공략하게 마련이다. 이성은 본래 어떤 무엇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계급으로부터의 해방', '권능으로부터의 해방' 등의 역사를 이끌어나갔던 이성의 거친 전진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면 또 다른 투쟁대상을 찾아낸다.⁷⁾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을 부리는 자가 발 딛고 서 있는 토대이다. 이성은 그 자신을 부리는 자가 발 딛고 서 있는 토대가 다른 자들의 희생, 다른 종족의 희생을 담보로 삼은 점령지임을 깨닫게 된다. 20세기 후반기에 이르면 이성은 그 자신의 주인을 향하여 칼을 겨누어서, 남성지배적 문화의 정당성을 묻게 하는 것이다. 물론 남성지배적 문화에 대한 도전은 여성이 갖추어낸 이성을 통하여 본격화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여성의 도전은 남성지배 문화 속에 놓여져 있는 여성의 식민성을 시대적 문제로 떠올리게 된다. 여성의 도전과, 이성의 세례를 받은 남성의 자각에 의하여 남성지배 문화의 성체는 요동하게 되는데, 그 속에는 '성문

6) 존 스튜어트 밀은 "여성의 예속의 역사적 타당성은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남성우월주의 이론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편, 『여성학』, 12쪽).

7) 여성해방운동은 19세기의 정치적 권리 획득을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어 1960년 후반기에 이르면 남성지배적 사회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되어 나간다(앞의 책, 21쪽).

화'도 중요한 부분으로 놓여져 있었다.⁸⁾

'성'을 중심에 두고 행해진 이성의 도전이 남성지배 문화까지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은 이제까지의 인류문화사 속에서 나타나곤 하였던 '문화적 토대의 요동' 양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다. 이제까지 역사의 변동은 문화의 현상성을 바꾸는 정도에서 그치곤 하였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인류 역사가 하나의 동질적 토대 위에서 흘러 내려온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은 그러한 현상적 변모에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도록 되었다. 20세기 후반의 역사는 문화의 가장 깊은 토대까지를 바꾸고자 하는 의욕을 보인다. '성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그 '2차적인 토대', 그러니까 성 의식의 가장 깊은 토대, 즉 '제1의적 성적 정체성'이나 '제1의적 성 역할'에까지 칼날이 겨누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 문화'에 있어서 더 이상 신성지역은 남아 있지 않게 된 것이다. '성의 자유와 해방'이 그 문화의 바탕적 구조까지를 해체시키면서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성'의 자유와 해방은 우선적으로 '여성 성'의 문제이다. '남성 성'은 어느 시대에나 자유로웠고 해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⁹⁾ '여성 성'의 구속은 그것을 통하여 부계혈손의 계승관계를 확실성의 토대 위에 두고자 하였던 역사의 소산이다. 사회적 지배력을 획득한 남성들은 '여성 성'을 사유

8) 심정인은 「여성운동의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 자체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문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봉건제의 붕괴과정에서부터다. 봉건제의 혁파를 주장하고 나선 부르주아 혁명의 이념은 인간의 개별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 이런 이념성에서 볼 때, 봉건제 하에서 겪고 있던 여성의 불평등 상황 역시 개혁해야 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었다”고 말한다(여성 편집위원회, 『여성 1』, 202쪽). 여성운동의 등장을 근대역사의 필연성 속에서 찾는 시각이라고 하겠다.

9) 동양적 예교의 시대인 중국의 송나라 시대에도 '남성 성'은 자유로웠다(유원근, 「성, 절제와 향유」, 중국철학회, 『현대의 위기, 동양철학의 모색』, 126~127쪽 참조). 그것은 송나라보다 예교가 더 강조된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시대 어떤 양반들에게 성착취는 권리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 점은 '아내의 눈을 피해 여종에게 접근하는 10가지 전술'(십격전술) 등이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전하고 있는 사실(신동훈, 「문헌육담과 구전육담에 담긴 성의식」, 김선봉 외, 『한국육담의 세계관』, 97쪽) 등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화함으로써 분명한 자신들의 혈손에 의하여 자신들이 사회 속에서 이룩한 모든 것들이 상속되어 나가기로 꿈꾸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적 소유를 중심에 받아들였던 인간의 문화적 특성이 '여성 성'에 대한 구속을 만들어냈다고 하겠다.

남성지배 문화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여 나갔던 여성의 도전은 정치 사회적인 평등성을 얻고자 하는 노력으로부터 개시된다. 그것은 남성지배 문화의 이상성을 갖추어 내고자 하였던 근세의 이성주의적 전통과 동일문맥 위에 놓여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여성의 도전은 필연적으로 '성의 식민성'에 주목하게 된다. '여성 성'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여성의 자유와 해방은 없다는 인식이다.

'여성 성'의 해방은 '성을 가볍게 하기'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성을 가볍게 하기'란 '성'에 부여되어 있던 책임, 즉 '성의 목표'를 폐기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 '성의 목표', '성의 책임'은 '임신', 즉 '후손 낳기'이다. 이 '성의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진화의 역사는 '성' 속에 '충동'과 '즐거움'을 배치하여 두었다. '충동'은 양성으로 나누어진 인간이 서로를 향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장치이고, '즐거움'은 양성으로 나누어진 인간이 끊임없이 서로의 존재와 효용성을 재확인하게 하는 생물학적인 장치이다. 현대 이전의 '성'은 이 '충동'과 '즐거움'을 '임신'이라는 '책임'과 한데 묶어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렇게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성'은 그것에 부속되어 있는 '충동'과 '즐거움'도 제대로 향유할 수 없게 하였다. 게다가 그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돌려져 있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은 상황을 바꾸었다. '여성 성'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발명한 것이다. 바로 피임기술의 발달이 그것이다.¹⁰⁾

피임기술은 '여성 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다. 그것은 '여성 성'이 더 이상 생물학적인 책임에 의하여 구속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의미

10) 피임법은 1919년경부터 본격화되며, 1920년대에는 콘돔을 실용화하고, 1960년대에는 경구피임약을 개발하는 데에까지 이른다(하재청 외, 『성의 과학』, 32~33쪽).

한다. 그런데 우리는 '임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성의 성'은 특히 20세기 후반의 인류적 삶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후반은 '모든 규범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전방위적으로 추구되었던 때이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자유롭기'가 전방위적으로 추구되었다는 것은, 20세기 후반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현상성의 특징, 그저 '즐겁고 풍요롭게 살기'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뜻한다. 삶이 총체적으로 가벼워진 현대인에게 '여성 성'의 책임을 해체시키는 '피임기술'이 주어진다는 것은 '성 문화'를 바탕으로부터 요동하게 하는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성'은 '즐기기'만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여 나가는 편향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즐기기'는 '무거움'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가벼움'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성의 가벼움'과 관계를 맺은 '즐기기'는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는 쪽으로 지향되어 나갔고, 그저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향락문화를 유일한 이념으로 선전하여 나가기까지 하였다. 20세기 말기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갖춘 영상매체와 인터넷이 이 향락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켜 내는 데 혁혁한 공적을 세우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¹¹⁾

세기말을 통과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성의 향락문화'는 '즐기기' 이외에는 어떤 무엇도 '성'의 주변에 자리잡지 못하게 한다. '순결'로부터의 자유, '결혼'으로부터의 자유, '도덕'으로부터의 자유를 마음껏 구가하면서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을 현대화(?)시켜

11) 91년 이래 97년까지 미국 포르노 비디오 시장은 500%나 증가했다(『주간한국』, 1997년 3월 6일 발행, 「미국 포르노산업 대해부」, 참조). 성산업은 영상매체를 통하여 전세계를 점령하여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중 가장 현대적 의미를 갖추고 있는 것은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성 문화의 전도사로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은 이승희가 인터넷을 통해 최고스타로 떠오르고, 그 인기를 업고 우리나라에 와서 10일 동안에 그녀가 통상 몇 년 동안에 벌 수 있는 돈을 긁어모아 미국으로 돌아간 사실(『주간조선』, 1997년 7월 10일, 「이승희, 10일간 몇 년치 벌 어」, 참조)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가고 있는 이 문화는, '성'의 생물학과 '성의 문화'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상호관계마저도 파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제 '성'은 인류의 진화과정과는 무관한 역사를 열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앞에서 나는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이 기본적으로 생물학이 떠올려 준 조건을 '근본적 토대'로 하고, 그것을 문화적으로 번역하여 낸 최초의 '성 의식'을 2차적 토대로 하여 조형된 것임을 말하였다. 이 경우에 '근본적 토대'와 '2차적 토대'에서 전자는 '존재'의 양상이고 후자는 '의식'의 차원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내용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며, 의식은 존재를 드러낼 따름이다. 이러한 것들은 '본질적 문화양상'으로서, 시대가 바뀌어 가더라도 그 내용은 불변적으로 바뀌어진 문화 속에 계승된다. 문화양상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에 따라 내용상의 변모를 겪는 것은 그러한 '본질적 문화양상' 위에 분식된 것들, '현상적 문화양상'들이다. '현상적 문화양상'은 어떤 문화나 관습의 세례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본질적 문화양상'은 불변적이고 '현상적 문화양상'은 가변적이라는 것은 적어도 고대로부터 20세기 후반에 이르는 역사 속에서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면 이러한 불변성의 토양도 '한없는 자유로움의 추구'라는 현대성의 격류에 휩쓸려 떠나려가 버리고 만다. 그리하여 '성 문화'의 바탕이 생물학적 영역이라는 '존재의 논리'도 무조건적으로 효용성을 인정받지는 못하게 된다. 사회문화적 차원의 구속으로부터 '성'을 구원하고, '도덕과 규범'이라는 틀 속에서 성을 구원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현대 인류의 역사는 '성'의 생물학적 토대를 폐기해서 '존재'로부터 '성'을 구원하여 자유롭게 하기를 꿈꾸기까지 하는 것이다.

'존재'로부터 '성을 자유롭게 하기'는 지금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성해방'의 모습이다. 그 선두에는 '동성애'가 놓여져 있다.¹²⁾ 그리고 '인간복

12) 동성애는 새로운 문화적 회두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에 최초로 동성애자 모임인 '초동회'가 결성된다(『주간한국』, 1995년 6월 15일 발행, 「동성애 공론화 시대 눈앞에」

제'13)와 '전자 성행위'14)가 그 뒤를 따라오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 그렇게 현대는 '성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내고 있는 것이다. '성 문화'의 '바탕으로부터의 요동', 그것은 인류가 전혀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이고, 인류가 이제까지 인류적 삶을 바탕에서 지지하여 주던 중심적 의식과 존재적 양상들에 대하여 더 이상 신뢰를 표명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이고, 현대적 삶이 '한없이 가벼워져'15)서 어떤 가치나 이상과도 친교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3. 동양적 전통이 갖추고 있는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에 대한 기본입장

동양적 세계 속에서 '인문성'은 '자연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거나, 장악되어 있다.16) 동양적 세계는 물리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장'으로 운

참조).

- 13) 인간복제는 종족번식이라는 생물학적 목적에 봉사하는 '성의 효율성에 대해 본격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겠다.
- 14) '전자 성행위'는 아직은 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술이 감각을 지배할 수 있는 시대는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은 존재의 영역이 아니라 기술의 영역으로 전환될 것이다(영화 『데몰리션맨』 참조). 그때는 인류가 그러한 '성'을 받아들일 것이나 아니나를 결정하여야 할 시점이다.
- 15) 한없이 '가벼운 성'은 한국에서도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1994년 한해만도 6만 4백90쌍에 이르는 이혼건수(『동아일보』, 1995년 6월 24일, 「결혼 2~5년 이혼 많다」 참조), 97년 현재 17%에 이르는 남고생 성 경험률(『동아일보』, 1996년 4월 17일. 이 통계에 의하면 여고생 성 경험률은 5%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수치가 늘어남을 부인할 수는 없다. 1995년 7월 29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서울대생 중 남자는 21%, 여자는 10% 가량이 성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는 자식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윤락을 택하는 가정주부들의 모습(『동아일보』, 1996년 7월 20일자, 「중산층 주부 윤락 충격」), 부부교환 성관계를 부부가 합의하면 문제될 수 없다고 대답하고 있는 사람들이 15.2%에 이르는 것(『동아일보』, 1998년 10월 27일자 참조) 등에서 웅변으로 증명된다.

용된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물리적인 '기운'의 힘과 운동력이다. 물리적인 기운의 전 세계적 연대는 여러 층의 작용방식을 드러내는데, 그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작용방식은 하나 하나의 기운의 상태로 복잡하고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이루며 작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운의 기본적인 작용방식으로, 이러한 작용방식은 세계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물리적 작용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¹⁷⁾

'성적 정체성'이란 본질적으로 존재의 문제이다. 동양에서 '성의 존재성'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를 구성한 기운의 성질의 차이로부터 기인한다.¹⁸⁾ 위에서 설명한 기운의 작용방식이 세계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어떠한 기운들을 집합시켜서 존재로 묶어냈느냐 하는 것이 존재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성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성의 차이'는 존재를 구성하는 데 관계한 기운의 차이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세상의 모든 기운은 두 가지 종류로 대별될 수 있다. '활동성이 강화되어 있는 기운'과 '활동성이 약화되어 있는 기운'이 바로 그것이다.¹⁹⁾

16) 이 점에 대해서는 나의 논문 「도리의 자연성과 사회성」(한국 동서철학연구회, 『동서철학연구』, 15호)을 참조하기 바람.

17) 이 점은 도가의 기운의 논리를 통한 '세계' 해석 방식에 의해서 대표된다(윤천근, 『새로 보는 노자 도덕경』, 1장이나 42장 등의 설명 부분을 참조바람). 그러나 적어도 '세계'에 대한 현상론적 설명방식에 있어서 도가와 유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18) 『주역』은 '하늘의 기운'과 '남성의 기운'을 일치시키는데, 이러한 기운들은 '활동성이 강화된 기운'의 집합으로 설명되고 '만물의 생성이 시작되는 동력'으로 선언된다. 그리고 '땅의 기운'과 '여성의 기운'을 일치시켜 '활동성이 약화된 기운'으로 범주화시키고, 그것을 '만물을 생성시키는 기운'으로 설명한다(『주역』의 건괘와 곤괘 참조). 『황제내경』은 그러한 기운의 논리에 바탕하여 구성된 남성과 여성이 나이에 따라 어떤 '기운의 논리의 변모과정'을 겪어 나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여 준다(『소문』, 제1, 『상고천진론편』 제1). 이 기록에 따르면 여성의 기운의 성적 변모는 7세부터 시작된다. 이 점이 '남녀가 서로 가까이 하지 않는'(『맹자』, 『이루상』) 문화, 즉 '남녀 7세 부동석' 문화의 배경이 된다.

19) 조혜정은 「한국의 가부장제에 관한 해석적 분석」에서 "주역의 남녀관에 따르면, 남성은 우주창조의 근원이며, 천상적인 것, 움직인, 강한 것을 나타내는데 반해 여성은 창조된 것을 유지하는 지상적인 것이며, 고요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상징화된다"고 말한다(조혜정 외, 『성, 가족, 그리고 문화』, 23쪽).

‘성적 정체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기운의 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활동성이 강화되어 있는 기운’이 주로 집합하여 이루어낸 존재는 남성으로 드러나고, ‘활동성이 약화되어 있는 기운’이 주로 집합하여 이루어낸 존재는 여성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존재론적 차원에서 ‘성적 정체성’은 ‘기운의 연대방식’과 ‘기운의 연대 속을 지배하는 작용력’의 성질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다. 존재론적 차원에서 어떤 존재를 드러낸 작용력은 그 근본적 구조가 탄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말해진다. 존재를 기운의 작용력으로 환원시켜내는 것은 그만큼 존재의 단위성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존재에 부여하는 정도의 차이는 사상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게 말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사상유형이든 일단 구성된 존재성의 바탕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동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하겠다. 이 점은 남성으로서의 존재성이나 여성으로서의 존재성 역시 마찬가지이다. ‘성적 정체성’ 역시도 기운의 성질이나 작용력의 차이로부터 떠올라서 그 작용력이 해체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라는 말이다.

하늘은 세계 속에서 ‘활동성이 강화되어 있는 기운’의 대표적 집합체로 말하여진다. 땅은 세계 속에서 ‘활동성이 약화되어 있는 기운’의 대표적 집합체로 전제된다. ‘활동성이 강화되어 있는 기운’과 ‘활동성이 약화되어 있는 기운’ 사이에는 ‘기운의 활동성’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 활동성은 결국 세계를 떠올리는 구조이다. 동양사상은 이러한 두 가지 성질상의 차이를 갖는 기운들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조화력’·‘생식력’으로 선언한다.

세계 속에서 근원적 ‘생식력’은 ‘하늘’과 ‘땅’을 주체로 하여 물리적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체의 세계에서는 이중적 구조를 갖는다. 생명체의 세계에 있어서는 ‘생식력’의 작용은 이중적으로 포설된다. 하나는 ‘하늘’과 ‘땅’이 대표하여 이끌어 가는 ‘생식력’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체 중의 ‘남성’과 ‘여성’이 이끌어 가는 ‘생식력’이다. 동양사상은 존재의

세계가 갖추어낸 '생식력'이 '생명체'의 세계 속에서는 제한적으로 생명체 중의 '남성'과 '여성'에게 양도되어 수행된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생명체 중의 '남성'은 '하늘'로 상징되고, 생명체 중의 '여성'은 '땅'으로 상징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에 의하여 드러나는 생식력은 그 자체의 욕망 위에 떠올라 있어서는 안된다.²⁰⁾ 욕망은 개인적인 것이며, 존재의 세계가 바탕에서 지지함으로써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은 자신의 의지가 개입함으로써 육신 속의 기운이 교란된 결과이다. 동양사상에서는 의지의 개입을 통해 존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일반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 의지의 기능을 아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²¹⁾ 의지의 기능을 인정하기는 하되 존재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만은 허용치 않는 경우도 있다.²²⁾ 그 차이는 아주 미세하다. 그 양자 사이의 공통분모는 결국 존재의 자연스러운 질서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는 것은 어떤 무엇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생식력을 중심에 두고 나타나는 개체의 욕망은 이러한 범주 속에 수용되지 못한다.²³⁾

생식력은 개체의 욕망을 출발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20) 이황은 "먹고 마시는 일과 남녀 사이의 일에는 지극한 이치가 깃들어 있는 것이나 커다란 욕망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한다(『퇴계전서』, 5권, 313쪽). 성적 욕망이 규율되어 이치가 드러나는 영역으로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선언이라고 하겠다.

21) 이러한 의식은 '노자'나 '장자' 등 도가사상가들의 저작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22) 이러한 입장은 공자·맹자·주자 등으로 이어지는 유학본류의 의식 속에서 발견된다.

23) 공자는 "어렸을 때, 혈기가 안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여자(色)를 경계하여야 한다"(『논어』, 「계세」)고 말한다. 이것은 어렸을 때에만 '여자'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조심하여야 할 일이 '여자'와 관계되는 것이라는 점을 말해 주는 글귀라고 하겠다. 공자는 또한 '여자'를 '소인'과 같이 열등한 존재로 치부하였다(『논어』, 「양호」). 그것은 '여자'가 '소인'과 같이 좋지 않은 기운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기운의 논리에 따라 가치의 우열이 정해진다는 의식의 일단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하늘에서 말하자면 양의 기운은 강건하고 음의 기운은 유순하며, 사람으로 말하자면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삼국사기』, 5권, 「신라본기 제5」)는 식의 주장 속에서 보다 구체적인 의식으로 드러난다.

자기발현을 출발점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체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생식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동양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은 이렇게 존재가 확정하여 주는 것, 생물학적인 영역 속에 주로 놓여진다. 물론 보다 정밀하게 말하자면, 동양에서는 진화의 관념이 성숙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물학적 영역' 속에 존재의 어떤 '성품과 기능'이 놓여진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기 어렵다. 동양적 존재론은 생명체의 역사가 자기전개의 과정 속에서 보다 숙련된 구조로서의 존재를 떠올리기에 이른 것이라기보다는, 물리적 상호작용의 필연적 결과로 존재가 드러난다고 말한다. 동양적 존재론은 생물학적이기보다는 물리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동양적 세계 속에서는 존재 속의 '남성'과 '여성'의 성품과 기능, 즉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은 어떤 기운의 연대를 통하여 존재가 드러났느냐 하는 것이 결정한다. 존재론의 영역 속에 놓여지는 기운의 연대방식이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을 바탕에서 지배하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학에서는 '활동성이 강화된 기운'을 가치우선적으로 전제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활동성이 강화된 기운'이 세계내적 질서를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고, 질서는 아름답고 가치있는 것이며, 질서에 쉽게 접근하여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현명함이고, 사회내에 존재의 질서를 옮겨놓는 것은 현명함을 통하여 가능하고, 현명함은 사회내에서 그만큼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한다는 일련의 유학적 사유방식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남성'은 '활동성이 강화된 기운'이 주로 포함되어 그 존재성을 이루어내며, '여성'은 '활동성이 약화된 기운'이 주로 포함되어 그 존재성을 이루어낸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의 미향이 종합적으로 기능할 때, 지배적인 남성과 피지배적인 여성이라는 '성적 정체성'이 유학적 세계 속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다.²⁴⁾

물론 지배적인 남성과 피지배적인 여성이라고 하는 사회정치적 불평

등관계는 존재의 철학이 확정시킨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실적 역사가 유학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관념이 현실의 역사가 유학에게 넘겨준 것이든 존재의 철학이 만들어낸 것이든, 이러한 의식을 유학이 전제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의식을 전제하여서 유학은 지배하는 남성과 순종하는 여성이라는 '성의 관념'을 만들어내며, 가문의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의 모습'을 확고하게 한다.²⁵⁾

현실적 역사 속에서 유학의 '성'은 가문·혈족·가족이라는 생물학적인 연계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있지 못하다.²⁶⁾ 유학에서 여성의 '성'은 가문의 후손을 생산하는 것을 통하여 효용성이 마련되므로 전적으로 남성가계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그 외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향유될 수 없다.²⁷⁾ 여성의 '성'은 남성가계의 계승을 위하여 헌신과 굴종만을 요구받는 것이다. 여성의 '성'은 부계혈손을 생산하고 양육하는

24) 소혜왕후 한씨는 “아내가 비록 한가지로 가지런하다고 이르나 남편은 아내의 하늘인지라 예로 당연히 공경하여 섬기되 그 아버지같이 할지니, 몸을 천한 일하는 사람처럼 하며 … 오직 순종할 줄 알아라”라고 말한다(『내훈』, 김종권 역주, 『신완역 여4서』, 75쪽). 이러한 여성관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기'로부터 시작되어 '부덕'(부인의 덕)을 적극적으로 주입하여 나갔던 모든 유학적 의식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공자의 말임을 전제하여 '여자가 남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문 밖을 나서지 말아야 함'을 강조(『내훈』, 김종권 역주, 앞의 책, 124쪽) 하는 것이나, '덕행·말씨·용모·숨씨 등의 여성다움을 갖추기'를 요구(『여계』, 『경순장』, 앞의 책, 41쪽)하는 것, '남자는 거듭 혼인할 수 있으나 여자는 두 번 시집갈 수 없다'(『여범』, 앞의 책, 152쪽)거나 '어진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정조를 깨끗이 하는 것'(『송약소 여논어』, 『수절장』, 앞의 책, 79쪽) 등에서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25) 이 점은 이른바 '세 가지 따름의 도리'(三從之道)가 대표하여 준다. "부인에게는 '세 가지 따름의 의리'가 있으며, 언제나 쏠 수 있는 도리는 없다. 그러므로 출가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출가한 다음에는 지아비를 따르고, 지아비가 죽은 다음에는 아들을 따른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식의 하늘이고, 지아비는 아내의 하늘인 것이다"는 것이 '세 가지 따름의 도리'를 말하여 주고 있는 구절이다(『의례』, 30권).

26) '많은 자손'을 '부인의 미덕'으로 간주하는 것은 '여성의 성'이 생물학적인 차원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음(『13경주소』상, 279쪽)을 의미한다.

27) 『모시정의』에서는 "부인이 제사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직분을 잃지 않는 것이다"(『13경주소』상, 284쪽)라고 하고 있다.

데에서만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이 확보되므로, 남성과의 1대1 대응관계 속에 완전히 장악될 수밖에 없게되며, 남성에 부속됨으로써만 일정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진다.

남성의 '성'도 가문주체성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는 것은 여성의 '성'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남성은 이 문화의 주류쪽에 서 있고, 여성은 이 문화의 주류일 수 없다는 점은 부인될 수 없다. 남성의 '성'은 가문을 보다 흥성하게 하기 위하여 1대1의 대응관계를 파기한다. 축첩제도는 남성의 '성'이 가문주체성에 보다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출되고 있는 것이다. 축첩제도 또한 향락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가문주체성이 요청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향락과만 관계를 지니는 기생제도는 기본적으로 축첩제도와 놓여져 있는 위치가 다르다.

가문중심성을 통하여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이 규정되는 것은 '풍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풍수'의 경우에 있어서 '성'은 '부계혈손의 기운을 후대에로 유전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풍수는 '성'을 통하여 조상의 육체가 내포하고 있는 기운과 같은 기운으로 구성된 후손이 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죽은 조상과 살아있는 후손 사이의 기운의 교감 작용에 주목한다. 물론 그 기운은 쌍방통행의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서 후손으로 전달되는 일방통행의 양상을 갖추어낼 따름이다.²⁸⁾

남성지배적 문화와 가문중심성은 유학과 그 주변에 놓여지는 동류의 사상들, 그리고 동양권에 속한 집단적 삶이 역사를 통하여 확정해낸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의 문화적 토대이다. 존재에 의하여 규율되고, 질서 또는 도덕을 목적으로 지향하며, 남성지배적 문화와 가문중심성에 봉사하는 것이 유학적 '성'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이다.

도가에 있어서는 유학의 경우와 조금 다르다. '성의 정체성'과 '성 역할'의 근본 토대를 존재, 또는 자연의 지배 속에 놓아둔다는 점에 있어서

28) 곽박의 『장서』 참조.

는 도가는 유학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유학은 그러한 존재의 지배양상을 나름대로 번역하여 사회화시키고, 그리하여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의 문화적 토대를 분명하게 구축해내었다. 도가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유학과 동행하지 않는다. 도가는 '성적 충동'이 자연의 욕망이라는 것을 승인한다. 그러나 도가의 성적 충동은 단위로서의 존재의 욕망인 것은 아니다. 도가는 존재의 단위성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적 존재는 세계와 연대되어 있는 부분일 뿐이며, 세계와 연대되어 있다는 점에 의해서 단위성은 언제나 해체된다. 존재의 단위성이 해체될 수밖에 없으므로, 도가에 있어서 단위적 존재가 드러내는 '성'은 '단위적 자아'를 복사하거나 유존시키고자 하는 충동으로 번역될 수 없다. 그것은 세계를 하나의 '장'으로 하여 연대한 기운이 그 부분으로서의 단위적 존재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인 것이다.²⁹⁾ 존재를 생물학적인 영역으로부터 빼내어 물리화적인 상호관계 속으로 환원시킴에 있어서 도가는 유학보다 더 철저하다. 도가의 영역에 있어서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은 물리적 기운의 자기전개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일 뿐, 그러한 자기전개 방식이 의식되거나 문화화되는 길을 걸어나가는 것은 아니다.

혹자는 도가에 있어서, 특히 노자에 있어서 '성'은 가부장적 전제의 문화로부터 벗어나 '여성가치'를 선언하는 쪽으로 지향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터이다. 여성, 또는 여성적인 것이 도가적 도리와 인접한 자리에 놓여지는 사례가 여럿 발견되기 때문이다.³⁰⁾ 그러나 노자에서 여성, 또는 여성적인 것이 말해질 때, 우리는 그것이 현실 속에서 가지고 들어온 개념이지 도가적 이상 속에서 가지고 들어온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

29) 노자는 "암수가 합하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여도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모든 (성적) 기능을 다한다"고 하였다(『노자』, 55장). '성적 기능'은 욕망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기운의 자기발현의 모습으로 드러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30) 노자에서 '부드러움', '연약함', '아래에 처함', '꿀짜기의 신', '암컷' 등은 도리와 가까운 자리에 놓여지는 덕성으로 비유된다.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여성적인 문맥 위에 놓여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할 필요가 있다. 노자에서 여성은 비유적 의미로 쓰여지는데, 그 비유는 우리의 현실세계가 떠올리고 있는 삶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의미화된 것이라는 말이다. 현실세계 속에서 '여성'은 약하고 부드럽고 수동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것들은 역사적인 여성의 모습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여성의 모습은 유학적 구조 속으로 들어가서는 '여성성'을 규정하는 문화적 인소들로 사용된다. 그러나 도가 속에서 그것은 '여성성'을 규정하는 자료로 원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갖추어야만 하는 태도, 즉 자기 무화를 통하여 전체를 포용해내는 태도로 원용된다. 그런 점에서 노자 속에서 말하여지는 '여성성'의 특징들은 여전히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일 뿐, 도가적 의미의 '여성성'을 조형하는 자료로 기능하지는 않는 것이다.

애초에 문화의 규범성이 기능할 수 없으므로, 도가에서는 '남성지배적 문화'나 '가문중심성' 같은 것이 드러날 수도 없다. 의식과 문화의 규범성, 지배력은 도가에서는 기초부터 해체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가의 세계는 도교로 넘겨졌을 때에는 또 달라진다. 유학과 도가는 기본적으로 '성'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다. 유학과 도가에 있어서 '성'은 윤리의 한 부분으로 말해질 따름이다. '성적 정체성'이나 '성 역할'도 유학과 도가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존재, 또는 자연이 떠올리는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그 기본적 토대 속에는 인간의 의식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이 자연, 또는 존재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라는 전제는 도교에서도 유효하다. 도교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은 유학이나 도가의 그것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다. 도교가 '성'을 생물학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육체적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는 신체적 구조의 특징을 말하는 데에 한정된다. '남

성과 여성 사이의 육체적 관계', 즉 '성 행위'라고 하는 생물학적 관계의 논리를 통하여 도교는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방중술의 '성'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도교적 '성'은 생물학적인 목표를 갖추지는 않는다. 도교는 '성행위' 그 자체에 주목한다.

'성행위'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중시하였던 것은 방중술과 관계를 맺은 문화에 한정된다. 방중술은 '성행위'의 목표를 문화적으로 전환시켜낸다. '생명 연장하기'가 방중술이 받아들인 '성'의 새로운 문화적 목표이다.³¹⁾ 방중술이 '생명 연장하기'의 방책으로 '성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세계를 기운의 논리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과 상관된다. 기운은 미묘한 상호관계 속에 놓여지고,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의식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방중술은 인간의 행위 중에서도 특히 역동적인 성격을 띠는 '성행위'에 주목한다. '성행위'를 통하여 신체 내부의 정기를 생기로 바꾸어 내고, 신체 밖의 정기를 흡수하여 스스로의 생기를 고양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중술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은 피차의 기운의 체계와 존재의 조건이 상호 유기적으로 반응하도록 지어져 있다는 것, 그러한 '성적 존재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의 정기를 격발시킬 수 있는 기능과 조건을 각자가 갖추고 있다는 것, '성행위'를 통하여 서로의 정기를 격발시키고 정화시켜서 '생명 연장하기'의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통하여 마련된다.³²⁾ 방중술의 '성'이 '생명 연장하기'의 방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성'의 윤리성은 증발된다. 생명연장의 방책이라는 효용성이 윤리성을 증발시킨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동양적 성은 방중술에 이르러서 비로소 도덕성의 구속을 벗고 해방된다. '성'에 있

31) 물론 '생명 연장하기'와 무관한 방중술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서역의 승려인 가인진이 순제에게 권하고 있는 방중술은 '즐거기'만을 목적하는 것이었다고 한다(강효린, 『중국인의 성』, 노장철학분과 옮김, 116쪽). 그러나 이것은 방중술의 주류라고 하기는 어렵다.

32) '환정보뇌'와 '복식' 등은 방중술에서 '불노장생'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양생법으로 말하여진다(기노우 마사요즈, 『중국의학과 철학』,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21쪽).

어서 '즐거기'가 중심적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도 방중술에서이다.³³⁾

방중술에서 '성'이 '즐거기'를 중심으로 하여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성행위'가 여러 가지 기운의 논리에 합당한 조건 위에서 행해지더라도, 그저 모든 성행위가 다 '생명 연장하기'의 효용성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 연장하기' 효과는 성행위 상대자가 '성적 절정감'을 느낄 때 주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남성이 방중술을 행할 때 여성의 '즐거운 성'은 아주 중요하게 고려된다. 그런데 방중술의 '성'이 이렇게 윤리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어내고 있지만, 남성지배 문화로부터의 해방까지 이루어내고 있는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여성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방중술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방중술은 남성을 위하여 기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방중술의 '성적 정체성'은 '성행위'의 남성적 조건과 여성적 조건을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 하는 데에서 말하여질 수 있고, 방중술의 '성 역할'은 '성행위'를 통하여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대자의 생기를 길러줄 수 있느냐 하는 데에서 찾아진다. 이렇게 방중술의 '성'은 전적으로 '성행위' 중심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4. '성적 정체성' 또는 '성 역할'은 현대에서는 더 이상 일반적 문화양상일 수 없는가?

현대는 전혀 새로운 세계이다. 이제까지의 역사 속에서 인류는 어디에서도 현대와 같은 시기를 경험하여 본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 현대를

33) 『의심방』에서는 '아들낳기'에 대한 기록이 여럿 보인다(647~648쪽 참조). 이런 점에서는 방중술도 생물학적 목표와 연관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방중술의 중심에 놓여지는 것은 아니다.

20세기말이라는 연관된 시대의 흐름 속에 배열하여 두는 것은 어쩌면 합당치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현대는 그만큼 과거와는 이질적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현대에는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 없다. 공간적으로 전 지구적인 삶의 방식이 일반화되어 나가는 것이 현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를 동양과 대비적 문맥 위에 두고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상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현대 속에서 우리가 동양을 떠올리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그것은 현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약점을 지닌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현대가 드러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 점에서 현대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내재하고 있는 것, 현대와 이질적인 것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동양은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동양은 현대와 이질적이며, 현대의 구성에 참여하지도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대의 부정성을 앞에 두고 동양을 떠올리는 것은, 우리의 근 현대사 속에서 '우리가 따들려 놓은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 부여,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중증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얼마쯤 탈출하고 있다는 사실도 의미한다.

동양은 분명히 '현대의 밖'이다. 동양 속에는 '전도된 현대', '현대 이전'이 있는 것이다.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 역시 마찬가지이다. 동양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은 현대가 갖추어낸 '성적 정체성'이나 '성 역할', 또는 현대가 미래적 세계 속에서 갖추어낼 '성적 정체성'이나 '성 역할'과 비교하여 본다면 아주 이질적인 것이 사실이다.

인류의 전통적 삶살이는 '성'을 목적가치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다. 인류의 전통적 삶살이 속에서 '성'은 수단적 위치에 만족한다. 인생을 살찌우는 수단, 종족을 번성시키기 위한 수단, 가정을 이루어내는 수단,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수단—'성'은 이러한 수단적 가치 속

에 놓여진다. 이러한 수단적 가치 속에 놓여져 있는 '성'만으로도 '성'의 위상은 아무도 업신여길 수 없는 높이를 갖는다. 이러한 수단적 가치 속에서도 '성'은 우리를 한없는 즐거움으로 인도하여 가기 때문이다. 인류적 보편성을 지니는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은 그러한 전통적 삶의 과정 속에서 생성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은 본격적인 변동을 요청한다. 20세기말의 인류적 삶을 바닥으로부터 요동하게 하는 이 대변동의 흐름 속에는 인류의 오만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인류가 다른 모든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만으로 인류적 삶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다는 오만이 국면을 지배하는 것이다. 인간은 모든 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성'을 중심에 두고도 오늘날 우리가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오늘날 '성 역할'의 규범은 총체적으로 무너져 버렸다. 남성이 하여야 할 일, 여성이 하여야 할 일의 구분은 더 이상 없다. 오늘날 '성적 정체성'도 바탕부터 허물어져 가고 있다. 남성다움·여성다움의 기준은 없다고 선언되고 있으며, 여자 같은 남자, 남자 같은 여자가 활보한다. 그리고 오늘날 '성 문화'를 바탕에서 구성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기초도 허물어져 나가고 있다. '성'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놓여진다는 생물학적 토대도 효용성을 의심받고 있고, '성 행위'가 종족번성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진화의 논리도 폐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인류는 집단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선택은 미래인류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선택은 자유만을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될 일이다. 결국 선택에 앞서서 우리는 철학을 갖출 필요가 있다. 나는 인류의 오만함은 겸손함의 세례를 받아야 하고, 인류의 자유는 규율의 보조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성'의 자유는 이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는 자유를 일정하게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때이다. 규율 없는 자유는 삶을 난파시킬 따름이기

때문이다.

동양은 인류의 전통적 '성 문화' 속에 놓여져 있는 규율과 '성 문화'가 정초하여 있는 근본적 토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준다. '성의 문화'가 쾌락만으로 가치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수단으로 놓여질 때 진실로 가치있는 것이라는 점을 동양은 우리에게 알려준다. 오늘 우리가 새 천년을 앞두고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을 새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현대가 선전해대는 자유로움과 아울러 동양을 비롯한 전통적 삶살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규율과 가치에도 공평한 시선을 나누어 주어야 할 때이다. 그 양자의 대화를 통하여 인류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성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 參考文獻 》

『周易』 『儀禮』 『毛詩正義』 『論語』 『孟子』 『老子』 『莊子』 『黃帝內經』
『退溪全書』 『三國史記』
郭璞, 『葬書』
丹波康賴, 『醫心方』(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江曉原, 『중국인의 성』, 노장철학분과 옮김(서울:예문서원, 1993)
기노우 마사요츠, 『중국의학과 철학』,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옮김(서울:여강출판사, 1993)
김선풍 외, 『한국육담의 세계관』(서울:국학자료원, 1997)
김종권 역주, 『新完譯 女四書』(서울:명문당, 1987)
소혜왕후 한씨, 『내훈』(서울:백양출판사, 1986)
이와사시 시게루 외, 『칸트, 헤겔, 마르크스는 이미 낡았는가?』, 정갑수 옮김(서울:보성출판사, 1989)
안동대학교 국학부 편, 『우리 국학의 방향과 과제』(서울:집문당, 1997)
여성 편집위원회 편, 『여성』1(서울:창작과비평사, 1985)
윤천근, 『새로 보는 노자 도덕경』(서울:법인문화사, 1996)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편, 『여성학』(서울:이대출판사, 1992)
조혜정 외, 『성, 가족, 그리고 문화』(서울:집문당, 1997)

중국철학회, 『현대의 위기, 동양철학의 모색』(서울: 예문서원, 1997)

하재청 외, 『성의 과학』(서울: 아카데미서적, 1996)

한국동서철학연구회, 『동서철학연구』(1998년 6월)